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21	02. 28	03. 07
대 표 기 도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신약통독-1월 24일~4월 3일(70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마치게 됩니다. 신약을 완독하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시오.
2. 협력선교-김선택, 장보경 선교사(허트번, 헝가리)
3.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유미영 집사(15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62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효종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13 : 22 - 30(신p118)..... 김효종 집사
 설 교 Predigt 무엇을 내세울까?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66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수현 집사

복종의 길

복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지시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복종은 분명히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항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계산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두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복종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영원한 기쁨뿐 아니라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F. B. Meyer(1847~1929)는 말합니다.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견디거나 행하는 것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이 땅의 혹독한 상황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싸우고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은 그 동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종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Meyer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 상황에 놓아두신 것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시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의지를 그분께 맡기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길 / Charles Stanley 목사
 (미국 Atlanta 제일침례교회 담임)

*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 대한 부르심이다.
 - Dietrich Bonhöffer(1906~1945년) -